

이상기후에 수출 보조금 끊겨...전남 유자농가 깊어지는 한숨

울 수확량 30% 줄고 가공 원자재 가격도 치솟아 '삼중고' 고흥군 울 230t 수출...WTO 협약 따라 1월부터 지원 중단 '1만원 주스, 1만 5000원 상승 불가피...바이어 이탈 불보듯'

수확을 마친 전남 유자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이상기후로 수확량이 격감하고, 원자재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의 수출물류비 지원이 폐지되는 등 악재가 겹치고 있어이다.

19일 고흥군 등에 따르면 고흥지역 유자 농가들은 지난해 100t, 올해는 230t의 유자를 해외로 수출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고흥군은 15개 농가와 10여개 수출대행업체에 올해 8억원의 수출물류비를 현금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전남 유자농가들은 정부가 지난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농가들에 대한 수출 물류비 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유예기간(8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출물류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수출물류비 지원은 포장·운송 등 물류비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수출할 때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에 선박·항공 등 운송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당장 정부 지원이 폐지됨에 따라 고흥 유자농가 등에서는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부터는 수출 물류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농가에서는 재정 부담이 커지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 당장 판로가 막힐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고흥에서 유자 가공 및 수출을 하고 있는 김경옥(49)씨는 "1만원에 판매하던 유자 주스 가격이 1만 4000원~1만 5000원 수준으로 올리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한탄했다.

김씨의 업체는 6ha 밭에 유자나무 3000여그루를 직접 재배하고 가공해 해외로 수출 중이다. 이 때 물류비는 수출 비용의 10~15%를 차지하는데, 이를 그대로 가격에 반영해 단가를 높이면 해외 바이어들이 죄다 떨어질까갈 위기라는 것이다.

김씨는 "수출 업체들은 외화를 벌어들여 국익에 도움을 주는 업체들인데, 도움을 주던 정부 지원마저 끊기게 됐으니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도 날이 갈수록 더하고 있다.

고흥에서 1.3ha 밭에 15년 동안 유자 농사를 해 온 이상현(61)씨는 "과거 고흥에서는 아무 데나 유자를 심어도 알아서 잘 자랐는데, 요즘은 정성껏 가꾸어도 20~50%는 냉해를 입고 고사해버린다"며 "올해는 장마가 길어지면서 흑점병이 돌아 수확기가 되고 보니 유자 알맹이가 작아져 수확량도 30여% 줄었다"고 말했다.

유자 재배에서 가공, 유통까지 아우른 업체들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

완도에서 유자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김은혜(49)씨는 "유리병 값만 해도 수년 전 600원대에서 최근 1000원으로 급증했다. 비료부터 운송비, 인건비 등 안 오르는 게 없으니 갈수록 힘들어진다"며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금이 끊기면, 들고 돌아 농가에 원가를 깎아달라는 요구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또 "해외 바이어들과 계약 시 정부 지원금으로 물류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금이 끊기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해외 바이어들이 우리 농산물을 외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17일 고흥군 두원농협 유자가공사업소에서 직원들이 해외로 수출될 유자를 손질하고 있다. 유자 농가들은 내년부터 정부의 수출 물류비 지원이 끊기면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 농식품 및 농업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을 2023년보다 188억원 늘린 6313억원으로 편성하고, 특히 수출통합조직 육성을 위한 예산(65억원→245억원)을 늘려 농가에 수

출통합조직 구성을 장려하는 등 대안을 제시했다.

수출통합조직은 농산업자와 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해 설립하는 조직으로, 재배할 때부터 품질을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받아 업체 간 과당경쟁 없이 수출을 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는 조직이다.

유자 농가들은 "수출통합조직을 만들거나 가입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공감하기 힘들다. 업체가 자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흥군은 내년부터 현금 직접지원 대신 수출용포장재 구입, 팔레트 구입 등 특정 목적으로만 쓰일 수 있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친모 살해 40대 심신미약 인정 감형

광주고법 징역 10년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어머니가 괴물로 보인다'며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신감정결과 심신미약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원심(징역 15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대신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은 유지했다.

광주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성운)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북구 자택 안방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조현형 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

해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범행 전까지 외래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했다.

주로 요양병원에서 숙식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께 코로나에 감염돼 한 달가량 집에 들리지 못하다 올해 1월 설 연휴를 맞아 집으로 오면서 잠극이 깊어졌다.

모친이 A씨에게 "잠을 자라"고 말을 하며 가까이 다가오자, '손발이 뒤틀린 괴물로 보여 무섭다'며 모친에게 주먹과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1심재판부는 "A씨는 조현형 장애 등의 증상이 있음에도 치료제를 먹지 않고 있었다가 모친인 피해자가 괴물로 보인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하면서 살해했다.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 민주화 추곡 현수막 시위 징역형 대학생 43년 만에 무죄

1980년 5월 당시 '민족민주화 성화'에서 민주화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대학생이 40여 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오영상)는 19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0년 5월 '민주화시위'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선 징역 1년 선고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전두환 신군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저지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건브로커' 연루 목포지청 수사관 혐의 부인

2차 공판...검찰 브로커 등 증인 신청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찰수사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코인 투자 사기 피의자와 사건 브로커 등을 증인으로 신청함에 따라 검찰과 피의자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의 심리로 19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 변호사법 위반·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광주지검 산하 지청 수사관 A씨에 대한 두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A씨는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에게 1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측에 법률 조언 및 수사 기밀 유출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는 수사무마 청탁을 대가로 다른 공범과 함께 가상자산 사기 사건 용의자로부터 고가 외제차 등 18억5400만원을 받아 구속된 상태다.

첫 재판부터 혐의를 부인해온 A씨 측은 재판부가 "성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청탁을 받고, 법률 상담 후 그 결과를 진술서 형태로 작성해준 사실도 없다"며 "성씨로부터 어떤 대가나 금전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골프를 친 사실은 있지만 성씨와 같은 팀으로 치지 않아 접대를 받지 않았고, 식사를 한 기억조차 없다"고 모든 혐의를 부정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으로 받아들인 증인은 코인 투자 사기 피의자인 B씨와 그의 동생, 성씨 3명과 골프접대사 같이 라운딩을 한 3명 등 총 6명이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에 같은 법정에서 열리고 이날 B씨 형제가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